[P4-11]

생화학 지표로 본 북제주군 성인의 연령별 건강상태

최정숙, 권성옥, 지선미, 백희영[1]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1]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생활양식과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질병 양상도 점차 선진국형으로 되어 암, 고혈압, 당뇨, 심혈관계질환 등과 같은 만성퇴행성 질환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위한 건강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수지역으로 알려진 북제주군의 두 개의 마을의 성인을 대상으로 연령별 생화학적 건강상태를 조사 분석하여 보다 심도있는 건강상태 분석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조사는 2002년 7월부터 2003년 9월에 걸쳐서 제주도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성인 336명을 대상으로 생화학적 검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된 생화학 지표로는 Creatinine, Blood urea nitrogen, Total protein, Albumin, Total bilirubin, Cholesterol, Triglyceride, Glucose, HDL, GOT, GPT, γGTP, ALP, CRP 등과 나트륨, 칼슘 등의 전해질을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SAS 8.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각 연령별 차이의 유의성 검정은 ANOVA와 Duncan's multiple comparison test에 의해 $p<0.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남여 성인의 모든 연령대에서 단백질의 영양상태를 나타내주는 혈청 총 단백질과 알부민의 평균치는 정상범위에 속하였으며, 연령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신기능 이상 확인에 주로 사용되는 요소 질소(BUN)의 측정치는 남성의 경우 70대 이상이 22.40㎎/dℓ으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낮아져서 30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크레아티닌 또한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아져서 70대 이상에서는 1.19㎎/dℓ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다. 여성의 경우도 70대 이상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요소 질소(BUN)와 크레아티닌이 높게 나타났다. 혈청 지질상태를 나타내는 콜레스테롤, HDL, LDL, TG는 남성의 경우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여성은 콜레스테롤이 80대 이상에서 60대, 70대에 비하여 193.06㎎/dℓ로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HDL은 연령이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헤모글로빈 농도와 헤마토크릿의 평균치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녀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콜레스테롤이 240㎎/dℓ이상으로 고콜레스테롤혈증의 위험이 있는 사람은 남성은 9.8%(8명), 여성은 19.9%(40명)으로 여성이 많았는데 이것은 여자 대상자의 평균연령이 65.6세로 남자의 54.7세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HDL-콜레스테롤 수준이 정상수준보다 낮은 사람은 남자 27.8%(25명), 여자 13.7%(28명)으로 남성이 유의적으로 많았다. 혈청 총 단백질과 알부민의 결핍이 의심되는 사람은 남성에게서 각각 14.9%(13명), 8.1%(7명)이였다. GPT와 γGTP가 정상치 이상으로 높은 사람이 남성은 각각 22.4%, 18.4%였으며, 여성은 모두 7.6%로 나타났다. 생화학적 지표로 본 성인의 연령별 건강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단백질 영양상태나 신장 기능이 불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꾸준한 건강관리가 요구된다.